한국드론보안협회 주최, 테르텐, 경희대 융합보안대학원·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한 제2회 국제드론해킹방어대회가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유영일 한국드론보안협회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164개팀 겨룬 드론해킹방어대회, 日 우승

본선 8개팀 5시간 경쟁

올해 최고의 드론 해커가 선정됐다. 35개국 164개팀이 벌인 치열한 경쟁에서 일본의 ierae팀이 최종 왕좌에 올랐다.

한국드론보안협회는 '제2회 국제드론해킹방어대회(Hack the DRONE 2024)' 오프라인 본선을 3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E)에서 진행했다. 본선에는 지난달 7일과 8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164개팀)을 뚫고 올라온 8개팀이 5시간 동안 본인들의 해킹 능력을 뽐냈다. 경기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드론에 대해 7가지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본인들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자유로운 해킹 경쟁을 벌였다.

세계적인 드론 해킹 대회로 주목받고 있는 'Hack the DRONE 2024(핵더드론)'은 한국드론보안협회가 주최하고, 테르텐과 경희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한다. 드론 보안 시장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 발굴과 차세대 드론 기술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본선 대회에서는 드론 시스템에서 주로 이용되는 OS 자체 취약점이나 드론 컨트롤러의 취약점 등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문제들과, 드론의 통신 감청이나 드론의 강제 제어 등 통신 과정에서의 취약점 공격 등 다양한 구성의 공격 시나리오를 포함한 문제 등이 등장해 참가자들은 고도의 해킹 및 방어 기술을 선보였다.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은 ierae팀, 2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KAIST GoN'팀, 3위 드론작전사령관상은 'GYG'팀, 4위 사이버안보연구소 대표상은 '하입보잉원'팀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특별상으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상과 한국정보보호학회장상은 각각 'PwnersLab'팀과 'SuperSonic'팀이 수상했으며, 기술상 부문에서 'CompSec'팀이 한국드론혁신협회장상을, 'Physical LAB'팀이 한국드론보안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드론작전사령부, 국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한항공, 한화시스템, 안랩, 지니언스, 수산이앤에스, 센스톤, 블루문소프트, 유넷시스템즈, 아쎄따, 옥타코, 시큐어링크, 한시큐리티, 엠엘소프트, 퍼시몬랩, 씨아이피시스템즈, 아울시스템즈 등이 후원 기업으로 함께하며 대회의 규모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일 한국드론보안협회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드론 보안의 중요성과 그 취약점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사회공헌 실천 충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체험 동행

충남도민 참여숲 조성 기부금도

왼쪽부터 차재혁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대표, 김태흠 충남도지사, 유병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아드반테스트의 한국법인 아드반테스트코리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공헌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기술 혁신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경영으로 업계와 지역 사회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충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과 문화탐방·체험 동행 행사를 진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드반테스트코리아의 많은 직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환경 보호, 교육 지원, 소외 계층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했다. 매년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했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하는 '충남도민 참여숲' 조성에도 참여하며 1000만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회사는 충남도와 함께 지역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차재혁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대표는 "우리의 기술 혁신과 기업의 성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 이룰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반도체 업계 리더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ESG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방침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한다.

회사는 반도체 산업 내 ESG 경영을 선도하며 업계와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중심에 둔 사회적 기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시리얼플래닛, 핼러윈 이벤트 메타버스서 기프티콘 구매 가능

대학 캠퍼스 메타버스 플랫폼 '시리얼플래닛'이 지난달 정식 오픈 이후 첫 대형 이벤트 '오싹오싹 핼러윈 대소동'과 '핼러윈 가을 운동회' 등을 진행한다. 시리얼플래닛의 '핼러윈' 이벤트는 11월 11일까지 캠퍼스 월드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핼러윈 대소동은 다양한 할로윈 테마 콘텐츠로 유저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출석 이벤트를 통해 유저들에게 SP(Scholarship Point)와 호박머리띠, 마녀 빗자루 등 특별 아이템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SP는 게임 내 통화를 넘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플라자에서 캐릭터 아이템뿐만 아니라 머니콘스토어에서 스타벅스, 뚜레쥬르, 교촌치킨 등 실제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인터엑스 "제조, 자동·정보화 넘어 지능·자율화 필요"

AI 자율제조 서밋 열어 강연 공급망 유연성·파트너십 강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전문기업 인터엑스가 제조 혁신 필수 요건으로 새로운 제조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스마트팩토리, 등대공장 등 제조업 혁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완벽한 디지털전환(DX)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기업·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터엑스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AI 자율제조 서밋(AMS 2024)'을 개최하고 AI 자율제조 관련 최신 글로벌 기술 동향, 파트너 기업과 함께 구현한 자율제조 사례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자동화와는 다른 자율화 형태의 제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생산은 물론 설비와 현장의 통합적인 관리, 유통, 유지보수까지 자율제조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는 "'AI 자율제조 글로벌 트렌드와 핵심 기술' 주제 발표를 통해 독일, 중국 등 제조강국이 자율 제조 고도화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조 분야 DX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글로벌 기업·기관과 협업 중인 인터엑스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대량생산 위주의 기존 자동화 체제로는 생산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공급망 재구성으로 빠르게 바뀌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면 그만큼 공급망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며 "고객 맞춤형 제품에 대한 시장 요구와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화·정보화를 넘어 지능화·자율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설비 운용과 데이터 처리 등 여러 기술에서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자율제조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행사에선 인터엑스의 AI 자율제조 제품 라인 전반과 신제품, 글로벌 기술 협력 현황도 소개됐다. 주요 협력사인 독일 프라운호퍼 그룹과 진행 중인 '자율 공장을 위한 스마트 센서 시스템' 프로젝트도 발표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나온웍스, 세레브로-엣지 GS 인증 1등급 획득

나온웍스(대표 이준경)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 'CEREBRO-Edge(세레브로-엣지) v1.0'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굿소프트웨어(GS)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레브로-엣지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플랜트,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하는 PaaS(Platform as a Service)다.

클라우드 및 데이터베이스(DB)와 유연한 연동을 지원하며,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마이크로서비스화해 CPS 환경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경량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독립적 배포 및 관리를 최적화해 유연한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세레브로-엣지는는 150종 이상의 디바이스 커넥터를 제공한다. 다양한 산업 자산 및 IoT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정규화한다.

이준경 대표는 "세레브로-엣지는 디바이스 연결과 데이터 정규화를 통한 통합, 유연한 확장성을 갖춘 애플리케이션 운영 지원으로 최적의 CPS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돕는 플랫폼"이라며 "GS 인증을 통해 CPS에서 요구되는 기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